부산시, '단골가게 선결제' 범시민운동 추진

공공기관 주도 민간 참여 유도
2월 중 업무추진비 37억 선결제
지역 경제계 대표 등 참여협약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

부산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우리동네 단골가게 선결제' 범시민운동 캠페인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범시민운동은 사회적거리두기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과 매출 감소로 애로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내가 다니는 직장, 내가 사는 동네에 단골가게를 홍보하고 선결제를 통해 어려움을 함께 나누며 재방문을 약속하는 캠페인이다.

부산시는 민생경제 추가 지원 대책으로 2200억원 규모의 '부산형 재난지원금'을 발표하고 신속 지급을 추진하고 있지만 설 명절을 앞두고 소상공인들의 경영난 해소에 숨통을 트여주고 지금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 경영안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선결제 운동을 추진하게 됐다.

부산시와 시의회, 자치구·군은 올해 업무추진비의 30%(37억원)를 2월 중에 선결제하고 이 가운데 20%(25억원)를 설명절 연휴 이전에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청, 이전공공기관 등 유관기관의 참여와 홍보를 독려하고 경제계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민간의 자율적 참여와 확산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작지만 큰 힘'이라는 슬로건 아래 공공기관이 주도하고 민간의 동참을 유도하는 '우리동네 단골가게 선결제' 참여 협약식이 4일 오전 부산시청에서 열린다.

협약식에는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 김석준 부산시 교육감, 김우룡 구청장·군수협의회장, 도용회 시의회 기획재경위원장을 비롯해 김문환 부산중소벤처기업청장, 강현철 부산고용노동청장, 추연길 부산시설공단이사장, 박기식 부산경제진흥원장 등 지역 공공기관장과 허용도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심상균 부산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지역 경제계 대표를 비롯 조정희 부산시민단체협의회 회장, 신광자 부산소비자단체협의회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공동결의문에는 민관이 합심해 우리동네 단골가게를 지키고 공공부문은 공공 지출 선결제의 선도적 추진과 구성원들의 주도적인 선결제 운동 참여, 경제계 및 시민사회는 자율적 선결제 참여와 확산에 동참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동결의문 협약 이후에는 단골가게 선결제에 동참해 시민운동 분위기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유관단체·협회, 대학 등 모든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홍보를 강화하고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선결제 운동을 확산해 나가겠다"며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들은 우리 주변에 항상 함께하는 가족이자 이웃인 만큼 선결제 운동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동참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부산=허의원 기자 bsmorning@metroseoul.co.kr

광양시 환경단체와 비촌마을 주민들은 산란을 앞둔 두꺼비들이 로드킬을 당하지 않도록 현장에서 구조작전을 펼쳤다.

광양시

산란 앞둔 두꺼비 보호

광양시 진상면은 두꺼비들이 진상면 수어천 자락의 비촌저수지를 찾아 산란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백운산 자락, 진상면 비촌마을 야산에 서식하는 두꺼비들은 봄이 되면 비촌저수지에 내려와 3월경 산란을 하며, 부화한 올챙이가 5월 새끼두꺼비가 되면 비가 오거나 흐린 날에 일제히 산으로 회귀한다.

이에 광양시 환경단체와 비촌마을 주민들은 지난 1일, 산란을 앞둔 어미 두꺼비들이 로드킬을 당하지 않도록 현장에서 구조작전을 펼쳤다.

진상면은 광양시, 지역주민과 함께 두꺼비 로드킬을 방지하고 청정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두꺼비들이 이동하는 도로의 환경 정비, 풀베기, 로드킬 주의 현수막 게첨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광양(전남)=김용확 기자 jijacecom@

전동평 영암군수은 3일 오전 국회와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지방정부추진단 발대식 사전 영상회의에 참석했다.

영암군, 탄소중립 최전방에 선다

전동평 군수, 탄소중립위 발대식 참석
"영암군 그린뉴딜·에너지 전환 앞장"

전동평 영암군수는 3일 오전 국회와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지방정부추진단 발대식 사전 영상회의에 참석했다. 탄소중립이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사용 등으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양을 환경보호 활동을 펼쳐 실질 배출량을 제로(0)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2050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지방정부 추진단은 지난 12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2050 탄소중립 선언으로 탄소중립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과 지방정부의 정책 공유를 위해 구성됐다. 정부는 금번 2050 탄소중립 선언으로 2030년 까지 온실가스 50% 감축을 목표로 석탄발전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해 새로운 시장과 산업을 창출하고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신 유망산업의 육성과 순환경제를 활성화한다.

정동평 영암군수는 "영암군은 그린뉴딜 및 에너지전환에 앞장 서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군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영암(전남)=김희선 기자 khs161700@

부산시, 수산자원연구소 혁신성장계획 수립

고부가가치 스마트 연구소 체질 개선
노후장비 교체·지역대 협력 인재 양성

부산시 수산자원연구소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고부가가치 스마트 연구소로 체질을 개선하고 세계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혁신 성장발전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수산자원연구소는 지난 2008년 12월 개소 이래 부산권역의 정착성 어류인 감성돔, 넙치, 보리새우, 전복 등 다양한 종묘를 생산해 연간 900만 미 가량을 방류하는 등 낙동강하구 수산자원의 생명 벨트에 위치한 입지적 이점과 연구인력의 높은 잠재력을 살린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종묘생산 위주의 양적 성장과 낙동강하구의 지역 특성 및 기후 온난화에 따른 생태환경여건 변화, 낙동강하구둑 개방, 가덕도 신공항 건설 등 각종 대형 국책과제에 의한 위협요인도 함께 있어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부산시는 주변 해양환경변화 및 대규모 개발 사업을 감안, 역점 추진 중인 스마트양식 테스트 베드와 연계한 연구소 차원의 중장기 비전계획을 수립했다.

중점 추진과제는 무결점 수산물을 공급하는 안전성 분석업무 강화 방안으로, 노후 장비의 신속한 교체와 더불어 생산자 및 소비자 등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하기로 했다. 4차 산업혁명 연계 스마트 수산 기술생태계 기반 마련을 위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지역대학과 협력해 스마트 전문가 양성 교육과정도 운영할 계획이다. /부산=허의원 기자

상주시

꽃 생활문화 운동 전개

코로나19 사태와 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상주시가 사무실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이달부터 6월 말까지 '꽃 생활 문화 운동'을 전개한다. 사무실을 밝고 활기차게 만들어 정서 안정에 도움을 주면서 화훼 농가의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주시 농업정책과는 시의 각 부서에서 꽃다발을 신청하면 화훼 농가가 월 2회 직접 지정 사무실로 배송하는 서비스를 시작한다.

또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은 '꽃이 있는 가정의 날' 이벤트를 마련해 직원들이 저렴한 가격에 꽃을 구입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상주(경북)=김홍기 기자

강인규 "신속하게 소상공인 지원대책 마련"

〈나주시장〉

간담회 통해 소상공인 애로사항 청취

나주시가 최근 코로나19 방역단계 격상에 따른 영업 제한조치로 경영에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신속한 피해지원 대책을 약속했다가 3일 밝혔다.

강인규 나주시장(사진)은 '소상공인 피해지원 대책 간담회'를 통해 업종별 경영 애로사항을 듣고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책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전통시장(목사고을·영산포풍물·남평5일), 권역별 상인회장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시는 오는 14일까지 2주 간 연장된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른 골목상권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원 시책을 추진한다.

오는 3월 이전까지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자체 재난지원금을 나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한편 올해 상품권 1000억원 판매·유통을 목표로 1분기 상품권 구매 금액의 10% 할인을 유지할 계획이다.

또 소상공인 경영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주민소득 융자지원사업(25억원), 대출이자보전사업(1억원), 전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 1억3000만원을 투입한다. 식당 영업 활성화를 위한 관공서 직영 구내식당 주 1회 휴무제도 지속된다.

이날 소상공인연합회, 전통시장·상인회, 미용협회 등은 '특별피해업종에 대한 핀셋 지원', '이차보전 등 경영지원사업 신청 서류 간소화', '상점가 도로 주차난 해소를 위한 홀·짝제 확대 운영' 등을 건의했다.

/나주(전남)=강성대 기자 ksd1008@

신안군

겨울꽃 랜선 축제 성료

신안군은 지난 2020년 12월 11일부터 2021년 1월 31일까지 압해읍 송공리 천사섬 분재공원에서 52일간의 '섬 겨울꽃 랜선 축제'를 마쳤다. 전국 최대 애기동백 숲이 있는 천사섬 분재공원은 다양한 분재와 쇼나 조각품 전시, 야생화원, 수목원, 초화원, 산림욕장도 갖추고 있다.

이번 랜선 축제는 3㎞에 이르는 애기동백숲에 식재된 1만 7000 그루의 하양, 분홍, 빨강의 애기동백꽃 2004만 송이를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랜선 축제로 진행하였다.

랜선 축제에도 불구하고, 찾아온 관람객들은 발열 체크 및 손 소독, 개인 간 거리 유지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2004만 송이의 애기동백꽃 향연을 만끽하도록 안내했다.

/신안(전남)=안행주 기자 abcd@

김천시, 시정추진 우수 공무원·부서 선정

최우수 공무원에 장성업 주무관

김천시는 2020년 주요업무 자체 종합평가 심의회를 개최하고 성과관리시스템(BSC) 업무 실적과 부서별 역점시책, 기관평가 수상 실적 등 1년간의 성과를 평가하여 실적이 뛰어난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을 선정한 결과를 발표했다.

2020년 최우수 부서는 '코로나19 경기 활성화 생!생!생! 프로젝트 추진', '김천시 온라인 일자리박람회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500억 규모)' 등으로 코로나19 극복 민생·경제회복에 기여한 일자리경제과가 선정됐다.

시정추진 최우수 공무원은 '신산업단지 조성 전 조기분양 추진', '국내복귀기업 투자 유치 및 국도비 확보'와 '총 19개사 3046억원, 신규고용인원 1580명의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는데 노력을 기울여 기업유치, 지역일자리 창출 기반 확충에 공헌한 투자유치과 장성업 주무관이 선정됐다.

/김천(경북)=김홍기 기자 gi2136@